

서울불교대학원대학 무더기 제적, 왜?

학교 측 vs 교수·학생, 음모와 횡포 주장만 되풀이



10월 22일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학생들은 학원정상화를 위한 108배 49재 회향 법회를 봉행했다. 법회 후 한 학생이 학교의 부당한 처사를 토로하다 울먹이고 있다.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사장 지옥, 이하 서불대) 분부가 10월 20일 학교 측의 미등록 학생 35명에 대한 제적 처분으로 집입경으로 치닫고 있다. 서불대는 설립자 덕해 스님 원력으로 2002년 개교했다. 설립 당시부터 교계 안팎에 큰 반향을 몰고 왔던 서불대가 어쩌다 학생 35명 제적이라는 내용이 시달리게 됐을까?

◇**황윤식 총장 해임이 발단**=사건은 6월 13일 이사장 지옥 스님이 당시 황윤식 총장을 해임하면서 촉발됐다. 덕해 스님 상좌인 지옥 스님은 “황윤식 총장이 일부 교수를 선동해 재단이사회를 전복하고 본교를 매각하려 한다”며 황 총장을 이사직과 총장직에서 모두 해임했다. 해임 사유는 사문서 위조와 직무유기.

7월 13일 교수협의회와 학생회는 절차상의 이유로 총장 해임의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학내구성원 갈등에 위험을 느낀 학교 측은 8월 29일 설립자 덕해 스님의 명예이사장직도 박탈했다. 하지만 황윤식 총장이 8일 교과부 교원소정심사위원회와 18일 총장해임무효가처분신청 법원 판결에서 총장 해임이 무효라는 확인에 새 국면을 맞는 듯했다.

학내사태 문제 해결을 위해 등록을 유보했던 학생들은 황 총장의 복귀가 확실시되자 총장 출근일에 한꺼번에 등록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사회는 황 총장 출근 첫날인 9월 23일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황윤식 총장을 직위해제 시켰고, 학생들의 등록금 납입 제재를 막았다.

10월 8일 총장대행이 된 김영란 교수는 휴학을 앞둔 미등록생의 원칙적인 제적처리 의사를 밝혔다. 학생들이 불교계 언론 등 외부에 분구 사실을 알리자 14일에는 학내 상황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면 등록을 받아주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15일 교수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과 뜻을 같이함을 피력했다. 하지만 제적 처리 마감시한인 15일이 지나자 학교측은 휴학 및 조건부 등록을 수용하지 않은 학생 34명에 대한 제적처리를 강행했다. 18일에는 학생회장 문민숙씨의 교내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운영직원을 고용해 학생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20일 제적통보서를 수령한 학생들은 22일 학원정상화를 위한 108배 기도회 회향법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학생지위보전가처분 신청 등 법적절차 착수와 교과부 탄원서 접수 및 길거리 퍼포먼스 등을 예고하고 나섰다.

◇**학교 측 독단에 막힌 소통**=학교 측의 파행운영으로 학생은 제적됐고, 학교 행정직 직원 등은 인사조치 됐다. 학교 측에 부당함을 호소한 교수들도 신분위협을 받기는 마찬가지였다. 교수협의회 대변인 박성현 교수는 “현 이사장인 지옥 스님은 교수회의에서 공공연하게 ‘총장도 잘랐는데 정년보장 교수라고 못 자를 줄 아느냐’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

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 교수들이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 위해 학생들을 동원해 벌어진 일”이라며, “학생들의 제적을 초래한 책임은 교수들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수 13명, 학생 160여 명의 소규모인 서불대는 재단의 제왕적 파행운영이 손쉬운 구조라 지적했다. 7인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전태진 이사, 전홍준 법안차장, 김봉희 이사 등 설립자 스님의 동생, 매재 등 속가 친인척과 도진·지옥 스님 등 상좌가 대부분이다. 전문교육자가 아닌 정실인사로 구성된 이사회들로 서불대는 설립 초기부터 분구의 불씨를 안고 있었다는 진단이다. 전문가 진단처럼 서불대 사태는 얽히고설킨 이사회 구조상 자발적인 타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울지 모른다.

교계사학인 서불대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불교계 위상이 하락될 것을 염려하는 이들이 많다. 학교 관계자들이 조계종 스님들인 만큼 종단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서불대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 유가 여기 있다.

◇**서불대 사태 해법은?**=교수·학생 등은 학교 측의 강경대응이 현 이사장 지옥 스님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이사장 지옥 스님은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교수들에 의해 선동되고 사주 받아 이사회 고위권인 인사권과 경영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명을 요구한 학교 측 관계자는 “학교 발전계획에 따라 인사를 단행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대구경북대회 11월 1일 두류공원에서 봉행

스님 1천명·불자 3만여명 이상 참여기로

11월 1일 오후 2시 대구 두류공원 야외음악당(당초 야구장에서 변경)에서 봉행되는 ‘종교차별금지 입법 촉구와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대구경북불교도 결의대회(이하 대구경북대회)에 스님 1000명 등 3만여 불자가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대회 봉행위원회는 10월 24일 대구 인터블로그호텔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한 지역 불교지도자 간담회를 열고 대회 주요 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대회는 11월 1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되는 식전행사에 이어 2시부터 본행사가 진행된다.

대회에서는 △종교차별금지 입법 촉구 △각종 사회갈등 해소 및 공동체 정신 회복 △법불교 대학의 대구경북복지부 출범 △성시화운동 참여 공적자에 대한 거부운동 △불교도들의 화합과 단결 및 호법이지 제고 등을 결의하며, 종교차별을 해소하고 종교평화와 국민화합을 위한 ‘불자행동지침’도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관 스님은 “종단과 사회, 국가 전체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그릇된 것은 시정해야 한다”며 “이번 대회가 여법하고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 많은 불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지역 스님들이 노력

해 달라”고 당부했다.

‘헌법파괴 종교편향 종식 범불교대책위’ 상임위원장 원학 스님도 “이번 결의대회는 정부의 종교편향 행태로 불거진 사회적 종교적 갈등을 해소하고 종교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조속하게 통과되기를 바라는 국가와 민족, 국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호계원장 범등, 직지사 주지 성운, 동화사 주지 허운,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과 태고종 대구총무원장 경목 스님, 진각종 대구교구 수해정사, 범화종 대구총무원장 혜각 스님, 대구사원주지연합회장 범해 스님 등 40여 불교 지도자가 참석했다.

김성우 기자·손병현 대구지사장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 지관스님 검찰 고발

친 개신교단체인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사무총장 이기영)이 10월 16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인사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의 고발 내용은 국가원수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8·27 범불교도대회의 집시법 위반, 2007년 정부 종교지원금 불교계 편중 등이다.

이기영 사무총장은 “불교계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며 “2007년 불교계에 지원된 국고 147억 원(문화재단리비 미포함)이 각 종단에서 바르게 쓰여졌는지도 고발 내용이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어 “소송이 진행되면 5년간 정부종교지원금 현황과 각 종단의 지원금 영수사항을 증거문서로 요청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은 제2의 새마을운동을 표방하며, 단군상 철거에 앞장선 친 개신교 성향의 단체다. 이기영 사무총장은 범불교도대회 직전인 8월 23일 <크리스천투데이>에 “불교계가 오히려 종교편향 혜택을 받고 있다”는 기고문을 실었고, 9월 11일 한국교회언론회 주최 ‘제8회 기독교언론포럼’에서 불교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노덕현 기자

“대구경북대회 성공 개최, 청년들 힘으로”

대불청 비롯 청년불자들, 대구 중심가 삼보일배

청년불자들이 대구 중심가를 삼보일배로 행진하며 정부의 종교편향 규탄 및 대구경북 범불교도대회 적극 동참을 호소했다.

대한불교청년회 대구지구(회장 이만희)는 10월 18일 대구역에서 ‘종교편향방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청년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대불청 대구지구 회원 80여명을 비롯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대구·경북지부, 참여불교제가연대, 한국전불자자연합회 등 불자 150여명이 동참해 종교편향 방지법 제정 및 대구경북 범불교도대회 참여를 촉구했다.

삼보일배는 대구역 사거리에서 반월당 네거리까지 2km 구간에서 진행됐으며, 삼보일배에 앞서 이만희 회장의 석발과 결의문 낭독이 거행됐다.

이만희 회장은 “대구·경북 범불교도대회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참호와 국민 대화합의 길을 열겠다”며 불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 노덕현 기자

東大, 24일 ‘명예의 전당’ 개관

발전기금 기부자 기념

동국대(총장 오영교)는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를 위한 ‘동국대학교 명예의 전당’을 10월 24일 개관했다.

동국대 본관 3층에 마련된 ‘명예의 전당’은 고액 기부자 성명을 새긴 조형물과 대학의 역사와 비전을 혼합한 형태로 구성됐다. 전당 벽면에는 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와 1000만 원 이상 1억원 미만 기부자로 나눠 각각 조형물을 설치했다. 조형물과 함께 4대의 모니터에서는 동국대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담은 영상이 상시 상영된다.

이선인 대외협력단장은 “기부자들이 특별 예우하고, 동국대인으로서의 자긍심을 키우기 위해 기획했다”며, “대학의 역사와 비전, 발전 계획을 알리는 공간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우 기자

구독신청·기사제보 02-2004-8200

대한불교 조계종 원명선원 중앙연수원

활인선원 개산개원법회

- 발원자의 뜻에 따라, 부처님 못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 장 소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비봉산 활인선원
- 일 시 : 11월 9일 (일요일)
 - 1부 - 부처님 점안식 9시 30분 (증명 : 원로위원 고우크스님)
 - 2부 - 개산개원법회 10시 30분 (법문 : 원로위원 고우크스님)
- 전 화 : ☎ 031) 671-7707, 671-6610
- 교통편 :
 - 11월 9일 7시 30분 개산법회일 조계사안, 강남7호선전철 양재역 서초구민회관 버스운행
 - 남부터미널, 동서울터미널 죽산행 2, 30분마다 출발. 죽산에서 시내버스10분 4번매정거장 '한평' 하차
 - 중부고속 일죽죽산IC에서 10분 거리. 영동고속 양지IC에서 20분. 경부고속 평택안성IC 40분

용인 비봉산 부처님 못자리 활인선원 (活人禪院)

단식과 간화선 삼매체험 수련회

- 용인 비봉산 활인선원 개원기념 7박 8일 집중수행 -

- 금강단식과 참선의 특징
 -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수행이다. - 몸에 고달리면 마음을 다스릴 수 없다.
 - 신체적 지극을 통해 외부로 향한 타성을 내면의 세계로 회복하는데 단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뛰어난 수행의 방법이다.
 - 일상의 삶을 통해 접근하는 간화선 수행의 지름길을 찾는다. 7박 8일 동안에 집중으로 공부 힘을 얻을 수 있다.
 - 화두 참구의 길로 바로 들어간다. - 공부 힘이 생기면 생활이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공부 힘은 운명과 천성에도 좌우되지 않는다.
 - 참선과 단식수행으로 사고의 틀을 열고 무한자재의 절대근원의 자아를 회복한다.
- 금강단식과 참선의 효과
 - 체질개선 해독 피부미용 아토피 체중감량 - 1일 최고 3kg 고혈압 당뇨 위장 대·소장 심장 간장 폐 신장 치료 예방 절연 등 금단현상 없는 다양한 효과. 예비단식과 보식이 필요 없음.
 - 자아통찰로 운영 천성이 바뀐, 심신개혁 자신감 신념증대 창의성 능력개발 성격개조 우울증 신경쇠약 정서안정 공포불안 대인관계 인내심 집중력 기억력
 - 예비단식 보식이 필요 없고, 물만 마시고 난치병 성인병을 치료 예방할 수 있다.
- ※ 자세한 내용은 카페 참조

뒤탈없는 금강단식으로 물만 마시고 난치병 성인병을 치료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금강단식과 참선 접수 안내
 - 접 수 처 : 네이버 카페 '활인선원'에서 접수
 - 대상 및 일정 : 일반인 60세한 (7박 8일)
 - ◆ 1차 → 11월 4일 ~ 11월 11일
 - ◆ 2차 → 카페 참조
 - ◆ 매월 수련회 개최 예정
 - ※ 자원봉사 모집 : 수련회 기간중 자원봉사 하실 분은 전화로 신청해 주세요.
- 회비할인 및 모집인원 : 선착순 55명, 10월 29일까지 등록시 25% 할인 (카페 수련회 안내문 내용 참조)
- 입금계좌 : 농협 237086-51-088910 (예금주 - 활인선원)
- 연 락 처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비봉산 活人禪院 ☎ 031)671-7707, 671-6610